

연패 탈출 간절한 페퍼스... 새해 승리 노린다



오늘 서울서 GS칼텍스 상대 12연패 탈출 도전 야스민의 공격력과 '용띠' 오지영의 활약 기대

페퍼스가 새해 첫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노린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1페퍼스가 2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의 맞대결을 펼친다. 12연패를 기록하며 2023년 마지막 경기를 마무리한 페퍼스가 2024년 첫 경기에서 연패를 탈출하며 비상할지 주목된다.

페퍼스는 지난 30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홈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0-3 (25-27 16-25 12-25)으로 패했다. 지난 11월 10일 GS칼텍스전 승리 이후 페퍼스는 계속 경기를 내주면서 12연패를 기록했다.

1세트 23-24에서 듀스를 만들며 따라가나 싶었던 페퍼스는 첫 세트를 기업은행에 내준 뒤 2·3세트에서는 큰 점수 차로 맥없이 무너졌다.

기업은행의 육서영과 아베르롬비가 18득점씩을 내며 활약했고 미들블로커 최정민도 12득점을 올렸다. 페퍼스에서는 야스민이 블로킹 득점 1개를 포함해 홀로 15득점을 올려냈지만 이한비(8득점), 박정아(8득점)와 필립스(6득점)가 각각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다.

2023년 페퍼스는 박정아의 영입과, 아현킴 감독 사퇴 이후 조 트린지 감독의 부임 등 변화의 시간을 거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현킴 감독이 그려놓은 밑그림 위에 조 트린지 감독의 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페퍼스는 현재까지 2승 17패, 승점 7점을 기록하고 있다. 7개 구단 중 유일하게 한 자릿수 승점일 뿐더러, 6위인 한국도로공사(6승 13패·승점 19)와 승점 차가 12점이나 난다.

페퍼스의 새해 첫 경기 상대인 GS칼텍스는 현재

3위를 지켜내고 있는 팀이다. GS칼텍스는 지난 29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1-3으로 패하며 5연승 도전에 실패했지만 12승 7패, 승점 34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GS칼텍스는 페퍼스가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를 만들어 낸 상대다. 당시 페퍼스는 1세트 36%였던 공격 성공률을 5세트에서 70.6%까지 올리며 끈기와 집중력으로 소중한 승리를 얻어냈다. 45득점을 올려낸 야스민은 개인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GS칼텍스 실바도 이날 31득점을 만들어 페퍼스를 긴장케 했다.

2일 경기에서도 페퍼스 야스민과 GS칼텍스 실바의 격돌이 예상된다. 야스민의 공격 성공률은 47.56%, 실바는 47.03%로 두 선수 모두 각 팀에서 주포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한편, 청룡의 해를 맞이한 만큼 '용띠'인 리베로 오지영이 올해 보여줄 활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06~07시즌 1라운드 4순위로 V-리그에 입성한 오지영은 2022년 12월 페퍼스에 투입되어 1년간 페퍼스의 후방을 책임져 왔다. 오지영은 이번 시즌 세트당 평균 디그 4.88개로 디그 4위, 리시브 효율 43.63%로 리시브 4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지영은 "작년에 아쉬운 경기들도 있었지만 절치부심하고, 청룡해에 페퍼스가 용처럼 활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든든히 뒤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아쉬웠던 2023년을 보낸 페퍼스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비상하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A1페퍼스가 지난달 30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 총재 신년사

“팬 퍼스트를 K리그 최우선 가치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추진

한국프로축구연맹 권오갑(사진) 총재가 2024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팬 퍼스트'를 약속했다.

권 총재는 1일 K리그 팬들에게 전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K리그를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권 총재는 2024년에는 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팬 퍼스트'를 K리그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언급했다.

또 ▲K리그 디지털 생태계 조성 ▲K리그 역사와 기록 체계화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권 총재는 “출범 40주년을 맞은 지난해 K리그는 유료 관중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제 K리그는 지나온 40년을 넘어 미래 40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며 “K리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 성장, 발전시키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다. 팬이 없는 프로스포츠는 존재할 수 없다. K리그 구단과 선수, 코칭스텝 등 모든 K리그 구성원들이 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팬 퍼스트’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K리그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축구를 즐기는 방법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이 자리하고 있다. 24시간 K리그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2020년 구축한 K리그 미디어센터의 중심으로 OTT 파트너 및 각 구단과 협력해 영상 콘텐츠의 공유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선수카드 등 디지털 자산의 개발



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K리그역사와 기록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권 총재는 “지난 해 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축구발전에 기여한 레전드를 선정해 K리그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는 영광스런 행사를 갖기도 했다”며 “4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역사와 기록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K리그와 관련된 자료와 영상을 수집,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각종 기록과 통계도 세분화해 더 많은 이야기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야기했다.

권 총재는 “구단들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단기간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 건전화 제도를 정착시켜 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겠다. 이와 함께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에 내부통제시스템을 신설해 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겠다”며 “축구를 통한 나눔 실천을 위해 ‘K리그 어시스트’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도 더 확대하고, 체계화시켰다.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통해 사회공헌 및 친환경 정책도 고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시즌 12호골 '새해 축포' 터뜨렸다

토트넘, 본머스에 3-1 승리

득점 공동 2위... 1위와 2골차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축구 팬들에게 새해 첫날부터 화끈한 득점포를 선물했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본머스와의 2023-2024 EPL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팀이 1-0으로 앞서던 후반 26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의 정규리그 12호골이자,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2골 1도움)였다.

토트넘은 후반 35분 히사카미의 추가골이 터진 뒤 후반 39분 본머스의 알렉스 스콧에게 추격골을 내줬지만, 추가 실점을 막고 3-1로 승리했다.

새해 첫날 득점포를 맞은 손흥민은 리그 12호골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도미니 솔라케(본머스)와 함께 EPL 득점 공동 2위에 랭크됐다. 득점 선두 엘링 홀란(맨시티·14골)과는 2골 차다.

본머스전을 마친 손흥민은 64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전지훈련에 나서는 한국 축구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한국시간으로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에 kick off한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 9분 만에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때린 파페 사르의 오른쪽 슈팅이 골대물을 가르면서 일찌감치 리드를 잡았다.

전반전이 끝나면서 한국시간으로는 2024년 새해가 밝았고, 마침내 후반 26분 손흥민의 '새해 첫 득점포'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지오바니 로셀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쇄도한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손흥민이 1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3-2024 EPL 20라운드 홈 경기에서 슈팅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머스 골대 오른쪽 구석에 볼을 꽂았다.

토트넘의 3-1 승리로 손흥민의 득점은 이날 경기의 결승골이 됐다.

홈 경기에서 결승골을 가동한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선수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MOM)'로 선정됐다.

경기 후 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맨 오브 더 매치 투표에서 손흥민은 전체 2만4998표 중 74.6%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날 손흥민의 골을 포함해 도움 2개를 작성한 로셀소(13.6%)를 따돌리고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지난달 24일 에버턴전에서 결승 골을 넣고 맨 오브 더 매치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 시즌 벌써 여덟 번째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로 인정받았다.

손흥민은 1일 이날 경기 사진과 함께 “2023년 마지막 경기를 여러번 덕분에 행복하게 끝냈습니다. 한국은 2024년이고 영국은 아직 2023년인데 특별하고 행복한 2023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2024년에도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서



국제보청기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